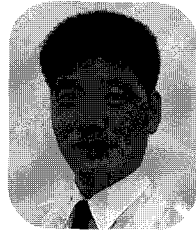


7월 지육시세는 2,800원/kg 예상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마을
모돈/비육계열팀

지난해 7월부터 하락한 돼지가격이 장기간 생산비 이하에서 머물러 많은 양돈 농가들의 속을 태우더니 5월에는 예상치 보다 약간 상승한 전국 평균 2,892원을 기록하여 돈가 하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던 농가들에게 한 고비를 넘기고 한숨을 돌리게 해 주었다.

그리고 6월 첫번째 주에는 3,264원을 돌파하여 매우 빠르게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돈가가 급상승하게 된 이유는 출하 물량의 급격한 감소가 제일 큰 원인으로 보인다. 4월의 전국 11개 주요 도매시장의 1주간 평균출하 두수는 30,582두이고, 5월의 평균출하두수는 28,804두로써 전월 대비 5.8%감소하더니 6월 첫주에는 23,881두로 전월 대비 17%나 대폭 감소하여 돈가의 급격한 상승이 출하 물량의 감소에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6월 6일부터 8일까지의 3일간의 연휴시기에 돈육의 소비도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돼지가격을 급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월 9일부터 3일 연속 돈가가 하락하면서 돈가가 약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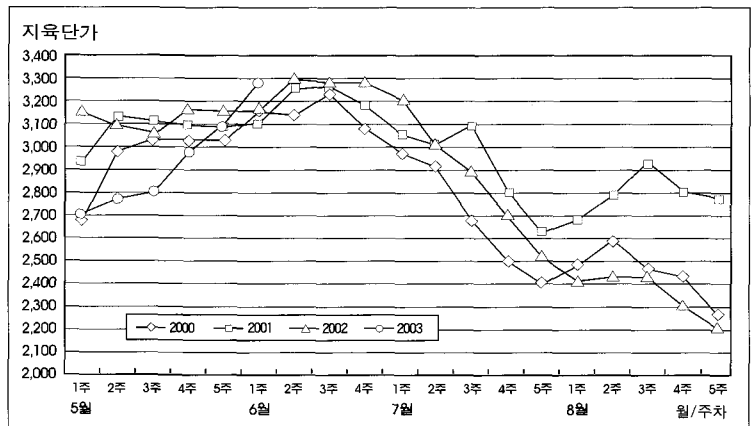
많은 양돈농가들이 금년도 하반기 돈가 추세의 방향이 어

떻게 변화될 것인지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필자가 본 견해로는 금년 하반기 출하 물량이 전년동기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료생산 물량중 자돈 사료 생산량의 감소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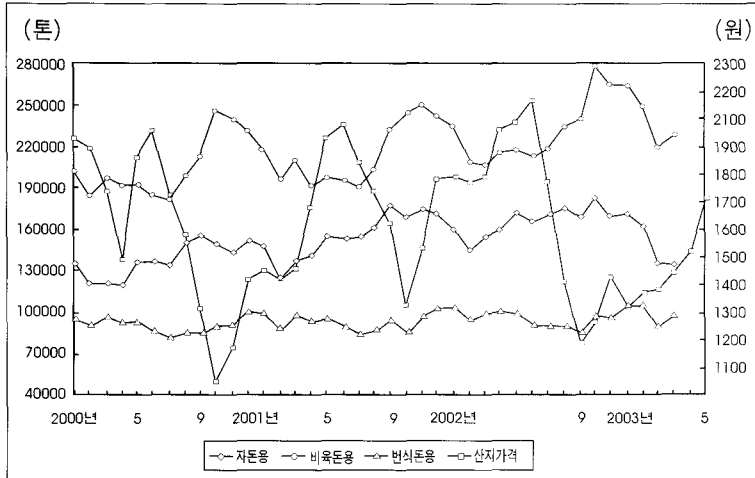
세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금년 4월의 양돈용 사료생산량의 발표가 늦어져 정확하지는 않으나 4월의 총사료 생산량은 전년 동월의 95%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4월까지 누계로도 전년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3월에 발생한 돼지열병과 돼지열병 백신 등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떨어져 하반기에는 전년동기간 보다 출하물량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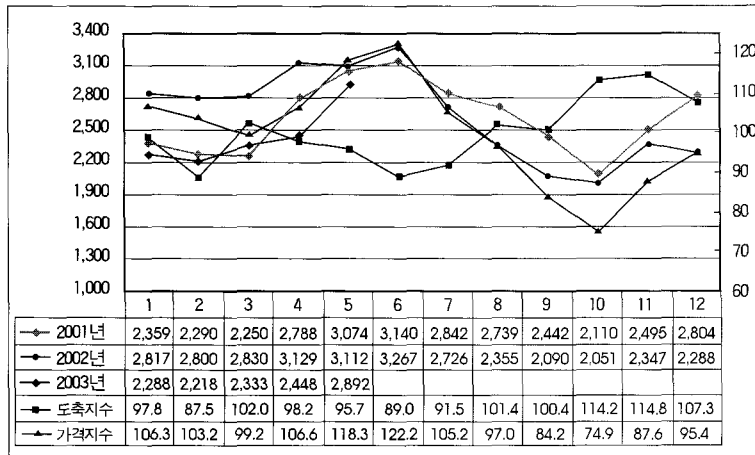
〈그림 1〉 최근 4개년간 전국 11개 주요도매시장의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그림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돈가동향



〈그림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와 월별 돈가동향



4월의 돼지 도축두수는 돼지열병으로 인한 3월의 이동제한 영향으로 4월 출하가 증가 되었다고는 하나 1월부터 4월까지 누계도축두수가 금년 5,387,080두로써 전년 동기 4,983,356두로 전년동기 대비 7.5%의 도축두수가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 즉 도축두수의 증가와 돼지사료 생산량의 감소가 주는 의미는 조금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하두수가 증가하였는데도 배합사료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비육돈 사료는 조금 증가한데 반하여 특히 젓먹이용 사료가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은

3~4개월후 부터의 출하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시장만 안정되면 돼지 가격의 하락은 매우 완만하고 길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의 돼지 가격은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과 불안이 빨리 해소된다면 그만큼 천천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매년 7월은 초복과 중복의 영향으로 복철 음식인 삼계탕과 각종 영양탕들이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어 공급이 조금 준다 해도 돈가의 대세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도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소비 시장의 위축으로 냉동육

시장 특히 전후지 부위와 안·등심 부위의 과다 재고와 부분육의 가격하락으로 육가공업체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돼지 가격이 계속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초복이전에는 6월의 높은 가격을 약보합세로 유지한 후 초복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하게 줄면서 돼지가격도 크게 출렁거리거나 하락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03년 전국11개 주요 도매시장의 비육돈 평균 지육단가는 2,800원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양돈**